

과학  
에세이



# 自然史의 가치관

章基弘

〈경북대 자연과학대교수 / 지질학〉

요즘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물계를 위시한 자연계의 다양성이 매우 귀한 것이란 생각이 일고 있는데 이 인식은 하나의 큰 배움이다. 이보다 약 2백50년 앞서, 유럽에서는 같은 인식의 첫번째 큰 파동이 일어났다. 그 무렵 각분야 학자들이 생물과 광물의 다양성이야말로 자연계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뚜렷한 인식에 눈떴었다. 그리하여 'Natural History' 곧 자연사(自然史)란 개념과 말이 생겨났다. 그 후 한 동안, 자연사라 하면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암석학, 고생물학 등을 총칭하는 것이었다. 이 분야들이 아울러 자연의 역사

라는 이름은 실로 대안을 허용치 않는 좋은 명칭이다. 자연사박물관은 자연계의 역사관(歷史館)이다.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벌써 그 명칭부터가 동식물, 암석광물과 화석이 곧 사료(史料)임을 일러준다. 필자는 중국에서 「자연사박물관」이라는 현판을 본 적이 있다. '자연사의 깊은 뜻을 몰라서 한 글자를 빠뜨린 것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던 것을 기억한다.

필자는 위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백50년전에 '자연계의 다양성이 그 역사의 산물'이라는 인식의 거보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 2백50년이 바로 현대지질학의 발달기간이다. 지질학은 실

로 그러한 역사인식이 생겨나면서 그것을 기초로 발달했다. 지질학자들은 사물을 볼 때 그것이 곧 시간의 화석이라는 견지에서 본다.

사물과 시간을 불가분리의 것으로 보는 나머지 양자를 구태여 구별하지 않고 막연하게나마 동일시하는 습관마저 있다. 가령, '터어셔리(Tertiary)' 라고 말하면 '제3기(第三紀)' 라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제삼기층(層)' 즉 '제삼기에 생겨난 모든 것'의 뜻이 된다.

이러한 습관과 '본능'을 가진 지질학자들에게는 자연사박물관의 박물관들은

그대로 곧 자연사로 보인다. 지질학자들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역사의식에 투철한 사람들은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역사의 화석됨을 느낄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최소한 한개의 그럴듯한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 선배 과학자들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1991년부터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지난 4년간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문화부의 예산안은 경제기획원에서 일찌감치 부결



◇미국 예일대학교 「피바디(Peabody)자연사박물관」 앞에 섰던 필자(男) 내외.

학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자연사'라는 말과 개념에는 실로 사상(思想)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말과 개념의 발명은 유럽사람들의 큰 공로이다.

Natural history(자연사)를 일본에서는 박물관이라 번역했는데 이는 역사라는 뜻을 전하지 못하는 그냥 편의상의 번역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세분되어 아무도 '자연사'나 '박물관'이라는 학과목 명칭을 들을 수 없다.

현재에는 다만 「자연사박물관」이라는 명칭 속에 '자연사'라는 어휘가 남아 있어 뜻깊었던 옛 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이

되었다. 문화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뒤 위원회는 과학기술처를 향하여 건립추진을 의뢰했으나 거절당했다.

필자는 위에서 위원회가 '지난 4년간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해왔다'고 쉽게 말했으나 그들의 활동은 형극의 노정(路程)이었다. 위원들은 생물학, 지질학, 민속학 등 분야의 전국에 흩어진 학자들로서 활동비는 물론 차비마저 자비가 아닌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 그들은 각자 벽간 책무와 학문상의 부담을 이미 안고 있는 분들로서 추진위의 위원 노릇은 오직 사명감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정부를 붙들고 사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일이 해당분야 학자들이 나서서 정부를 붙들고 사정을 해야 할 일이던가? 그 거꾸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임은 물론이다. 정부의 발의에 의했어야 할 것이고 학자들은 내용상의 일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학문 외적인 일에 정력을 낭비하는 것만도 국가적 손실인데 결국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한 나라의 문화정도는 자연사박물관의 실태를 가지고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명료한 잣대를 가지고 내 나라를 측정해 본다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멋진 자동차를 만들고 산더미만한 선박을 건조하지만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은 하나도 없는 나라,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자연사박물관은 화석이나 동식물의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연구기관이며 연구 결과로서의 전시물을 보고 관람자들은 자연의 역사와 이치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다. 선진국의 자연사박물관에 가보면 많은 학생들이 노트를 하고 스케치를 해가며 공부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자연사박물관에서 하는 그러한 자연연구, 자연학습, 자연실습이 우리 나라에서는 결핍되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생님들의 입과 학생의 머리 사이에서 오가는 추상적인 공부가 그 실습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능률적인 자연 연구와 피상적인 자연 이해를 가지고서는 옳은 과학과 기술 발전은 어렵다.

지금 정부에서 해체를 계획하고 있는 구충독부 건물을 현 국립박물관이 되기 이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물로 쓰도록 했으면 하는 안이 있었으나 들어지지 않았다. '선조들의

귀한 유물을 총독부 건물 안에 보관을 하다니 당치 않다'는 이유로 새 박물관을 지어나가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건물을 자연사박물관으로 쓰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방침은 그 건물을 해체한다는 것이다. 독립정신에 위배되고 민족정기에 손상을 주며, 건물의 꼴이 위압적이라 보기 싫고, 서울의 맥을 끊으려는 미신적 복안으로 지은 집이라는 미신적 이유 등을 내걸고 해체하려는 것이다. 해체하고 새건물을 짓는 비용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하나쯤 넉넉히 짓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옳은 자연사박물관 하나 없는 나라답게 굳이 그 건물을 구충독부라 하여 헐어버리려 들고 있으니 한심하다.

기분과 미신에 사로잡혀 그 건물을 없애려는 것은 그만한 건물(일종의 전리품) 하나도 지닐 복이 없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왜 그런가? 다름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이며 의식구조의 문제이다. 자연사박물관이 들어먹히지 않는 그 사실도 동일한 사고와 의식의 장벽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의 전반부에서 자연사와 자연사박물관의 배경에 있는 사상과 사상사(思想史)에 관해 말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위의 노력은 일단 수포로 돌아간듯한 형편에 있으나 그들이 정부와 민간을 향해 계몽의 구실을 한 공로는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세계는 하나의 교육기관이며 민족은 학생집단이다. 자연사박물관은 유럽 사람들의 성숙의 소산이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성패는 이 민족의 성숙의 잣대 구실을 하리라 생각된다.

자연사박물관에는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정부 행정부처의 몰이해로써는 일단 만들었다가도 '경쟁력'을 이유로 폐지론이 나올는지 모른다. 자연사박물관 자체보다 자연사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이 겨레가 더 성숙되어 박물관을 보면서 역사를 연상할 줄 알고, 그 교육효과에 비추어 박물관에 드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아는 그 단계에 이르면 곳곳에 알찬 자연사박물관이 생기고 명실상부한 국립자연사박물관도 이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날이 온다는 뜻이 아니다. 엘리트들의 노력이 없이는 역사가 앞당겨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사박물관은 돈이나 건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연구활동이 필요하므로 지금도 늦었고 한 시가 급하다. **ST**